

고린도전서 3 장 전반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라

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2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5 그렇다면 아불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불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12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13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 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5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1. 1-2 절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 a.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 b.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

2. 3 절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a. '시기와 싸움'이 있다 -> 파당을 지음 <->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 (엡 2:13-18 절)

"13.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15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b.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

- 3. 5 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불로는 단지 '일꾼'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7 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4. 9 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불로를 하나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5. 12 절에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기초 위에 여러가지 건축 재료들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 절에 불(고난, 역경)이 닳을 때 그 집들의 내구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 장 후반부: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16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20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6. 16 절은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건물'의 개념을 확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고후 6:16)
7. 17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 18 절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9. 19-20 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일 3:13)